

국가주의로 무장한 사람들에 의해 나라가 존망의 갈림길에 빠졌다"면서 "시장으로 귀환하는 정책 없이는 한국경제에 미래가 없다"고 일갈했다. 사공일 역시 "시장 기능 무시하는 경제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"고 강조했다. 문 정권은 부디 이들 경륜가의 호소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. 보여주기식 '국민과의 대화'가 따로 필요 없다.

김동호 논설위원

인쇄하기

취소
